



후아...♡



이제 됐지...?

그럼 약속대로...



앗...!

뭐,
뭐하는 거야?!



스윙

흐읏...♡

할라 짹

그, 그만 뒤!

할라 짹

왜 그런 곳을...!
아흐...♡

인간병기의 발이
어떻게 생겼을지
참 궁금했는데,

할라 짹

생각보다 양증맞군.

하루종일 부츠를 신어서 그런가
땀에 젖어진 농염한 암컷향이 나는군...

할라 짹

그나저나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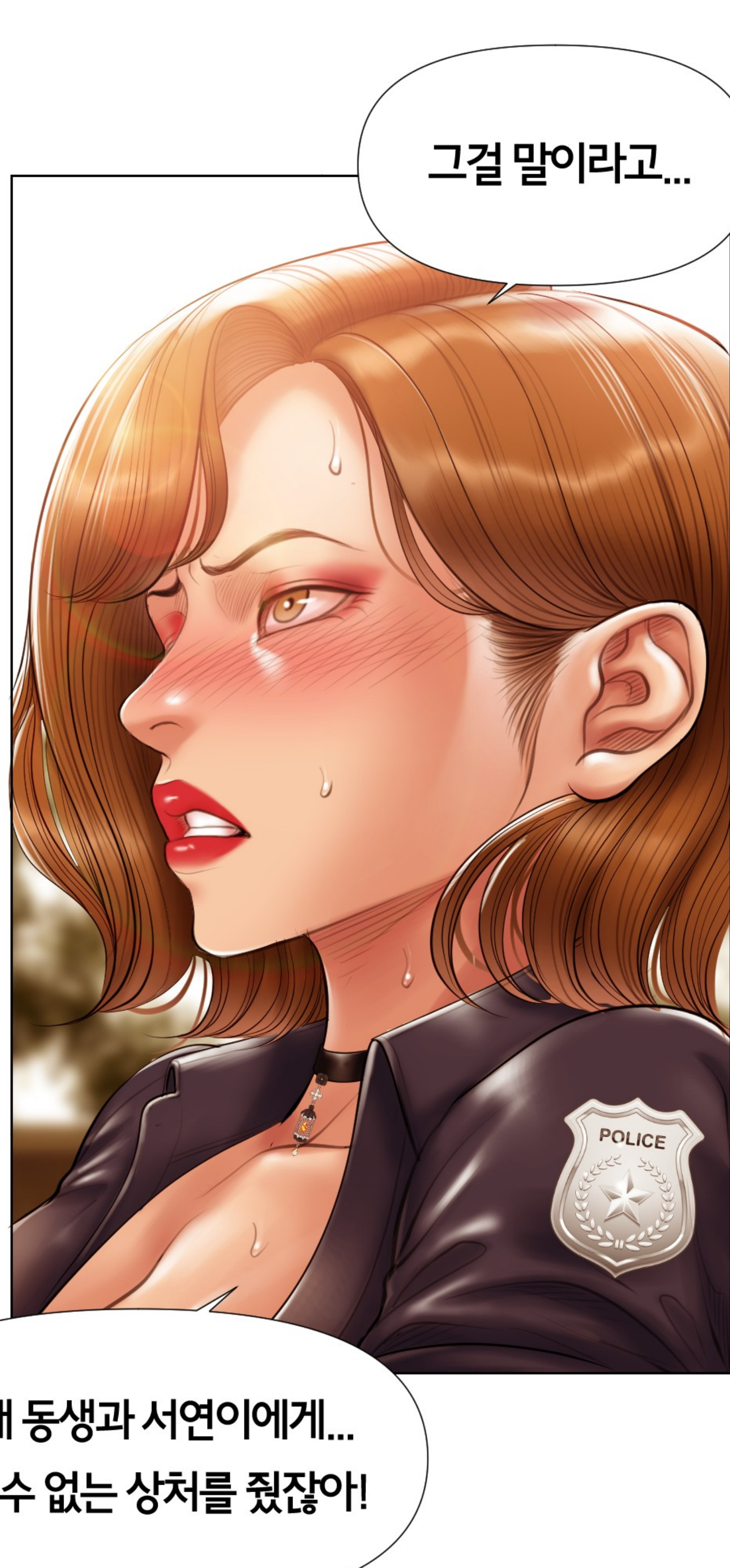
왜 그렇게 날
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야?



난 너와 좀 더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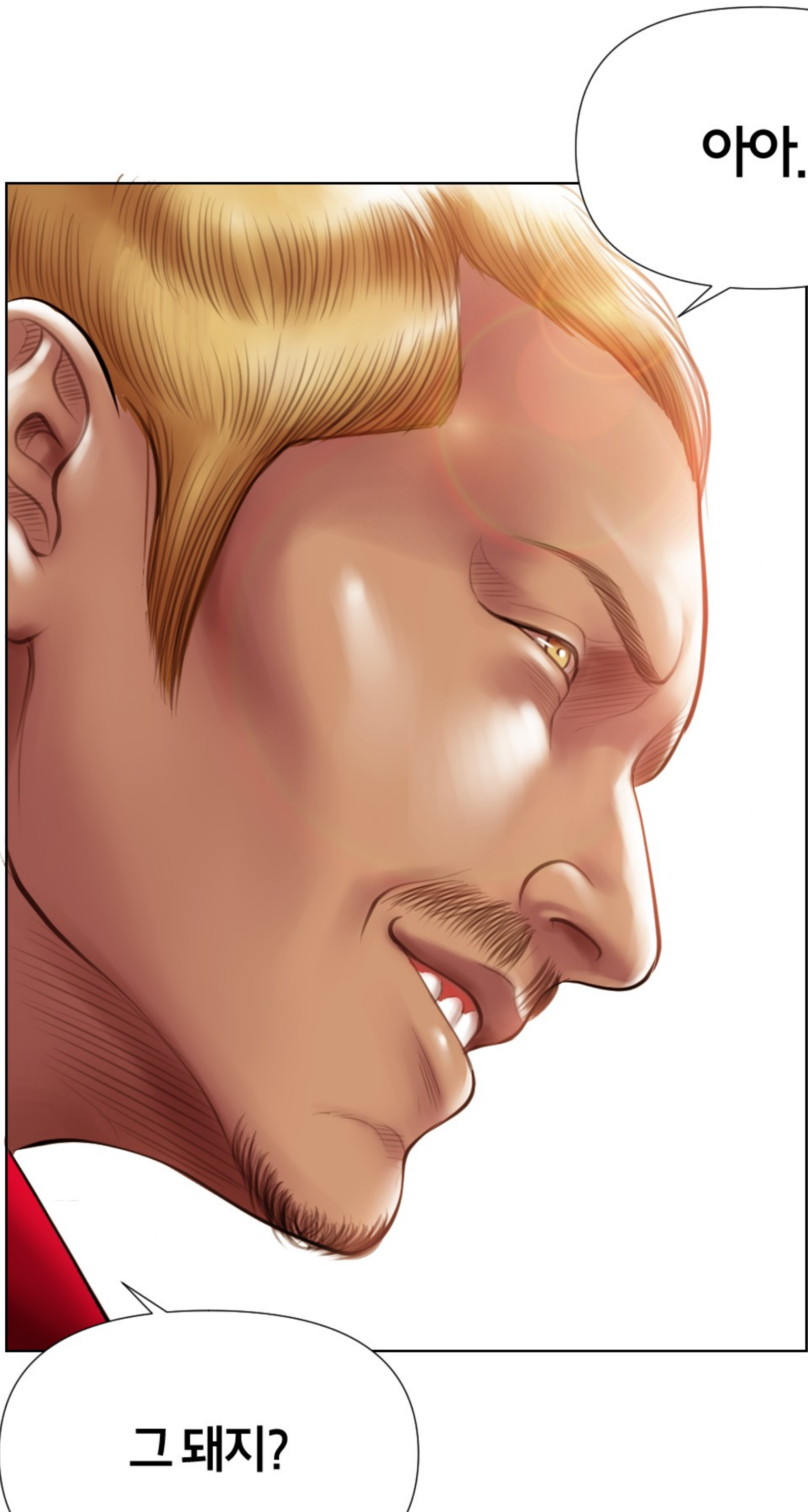
저
익

친밀하게 지내고
싶은데?



그걸 말이라고...

넌 내 동생과 서연이에게...
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잖아!



아아...

그 돼지?



그리고 보니 둘이
생긴 게 왜 이리 짝판이지?
엄마가 다른가?

다, 닥쳐!



키키키!

난 너가 그렇게 양칼지게 굴수록...



푸

까악!

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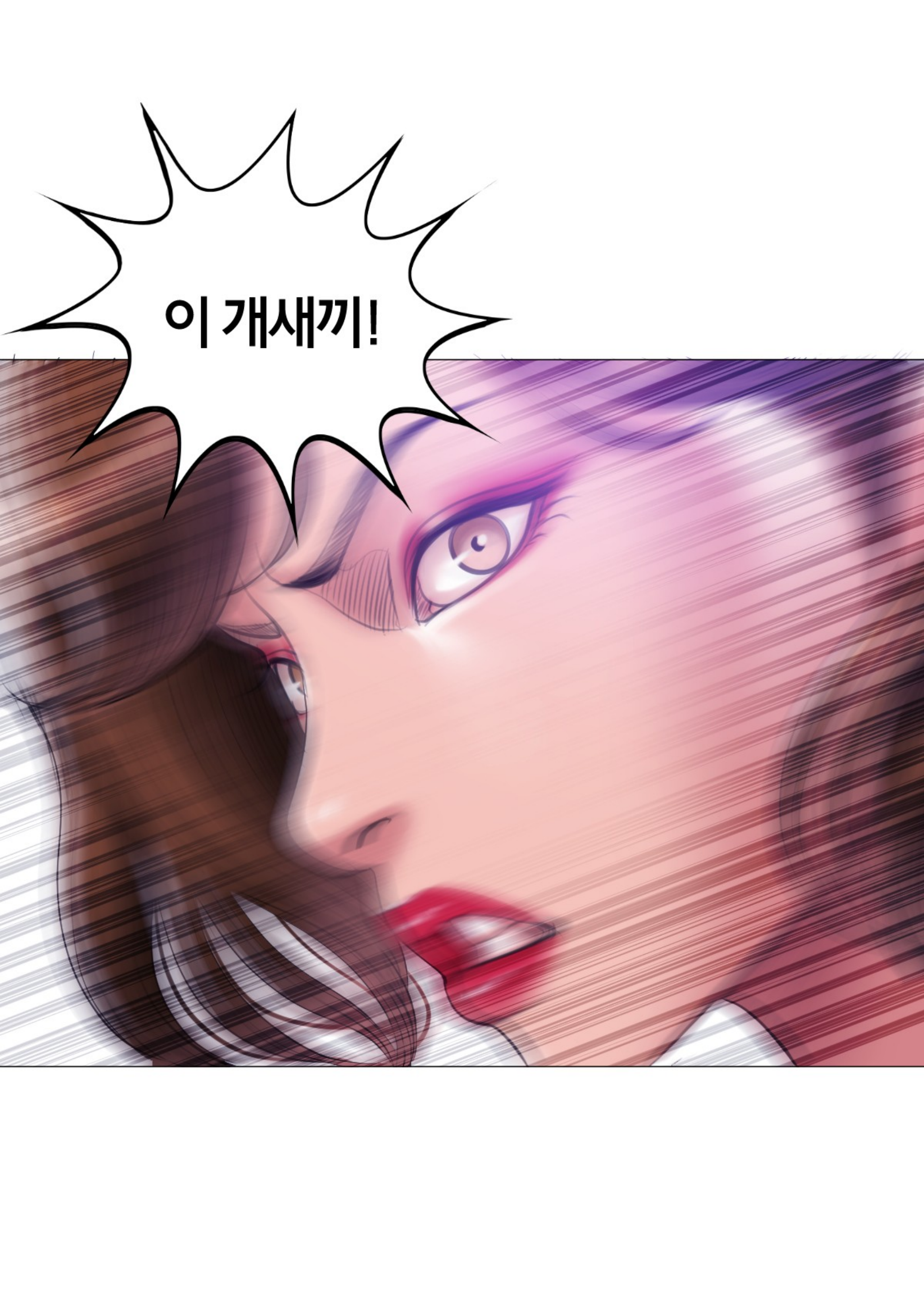
찌
적

더 짓궂게
놀려주고 싶단 말이지?



....!!

찌
적



이 개새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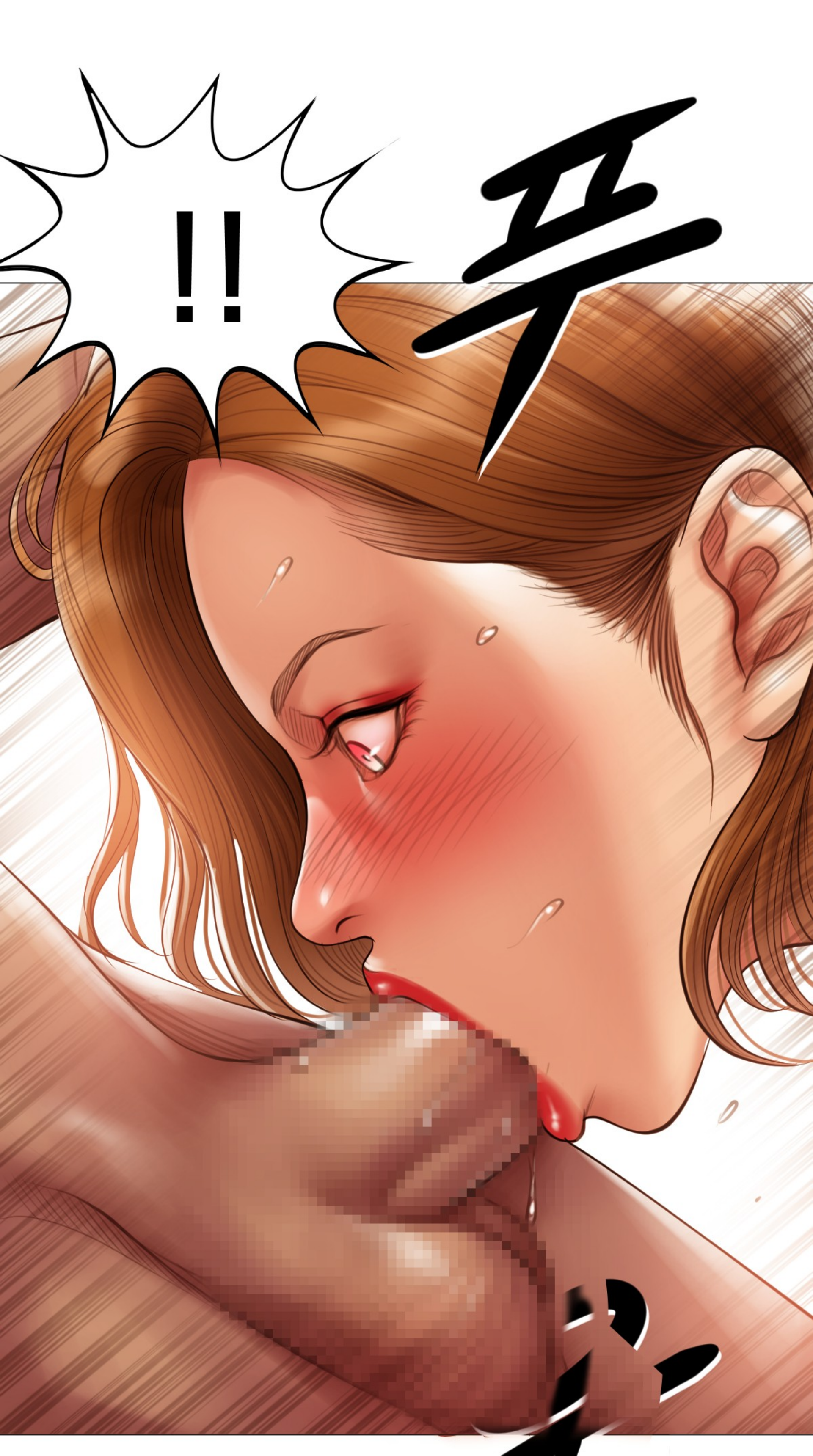


짜

!!

악





!!

푸

욱



쭈음

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다니...

쭈음



쭈음

건방지기 짝이 없군.

쭈음

우우음...!



.... 킅!
부우음....!

쭈음

쭈음

수, 숨막혀!

주제를 모르는
버릇없는 년에겐

쭈응



그에 걸맞는
대접을 해줄 수 밖에.

쭈응

짜



우읍!

악

우뚱...!

쭈응



치,
치욕스러워...

그런데...

이
기묘한 흥분감은...

아아아♡



대체...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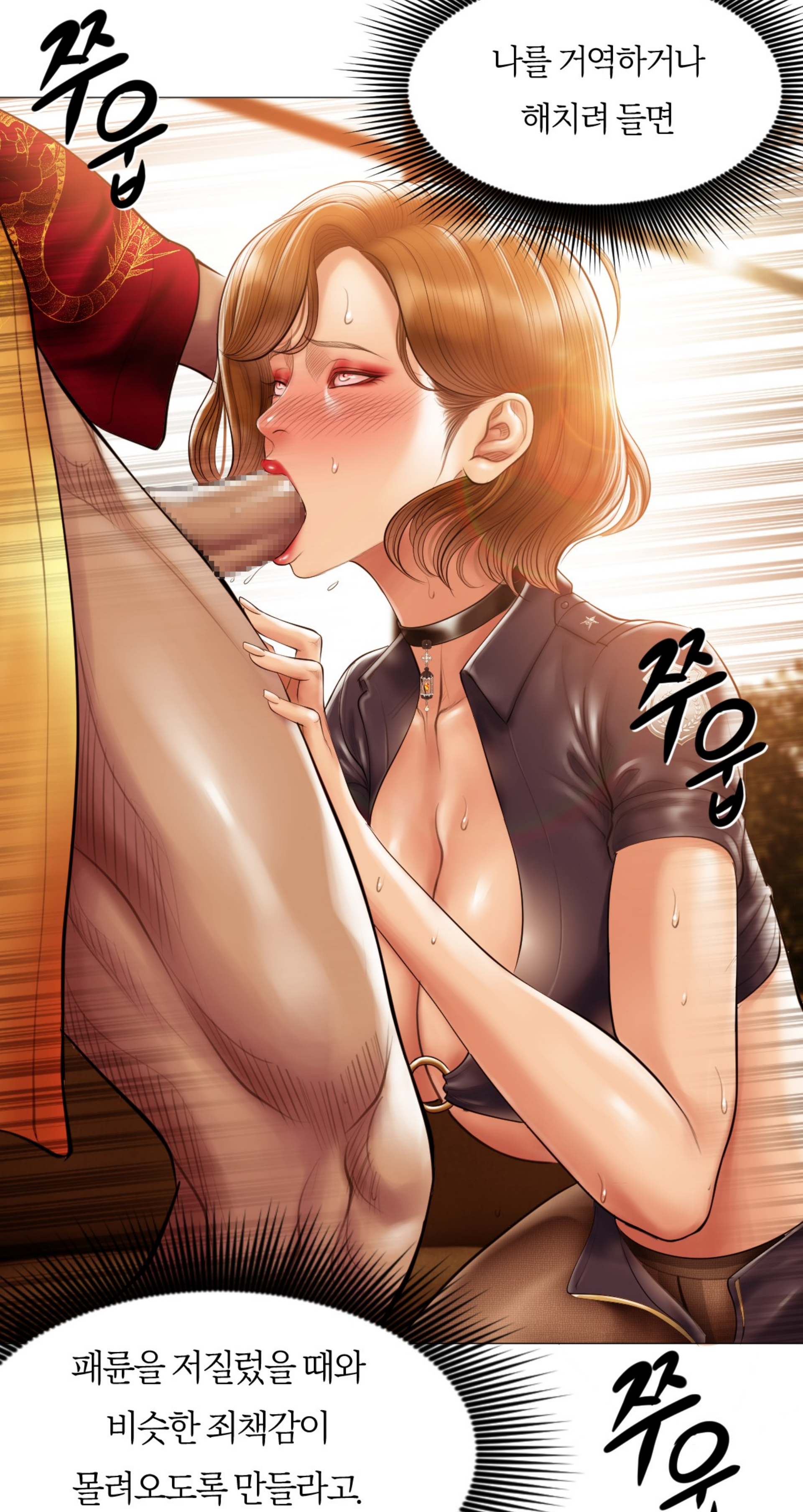
뿌응

NOIADIS♡

뿌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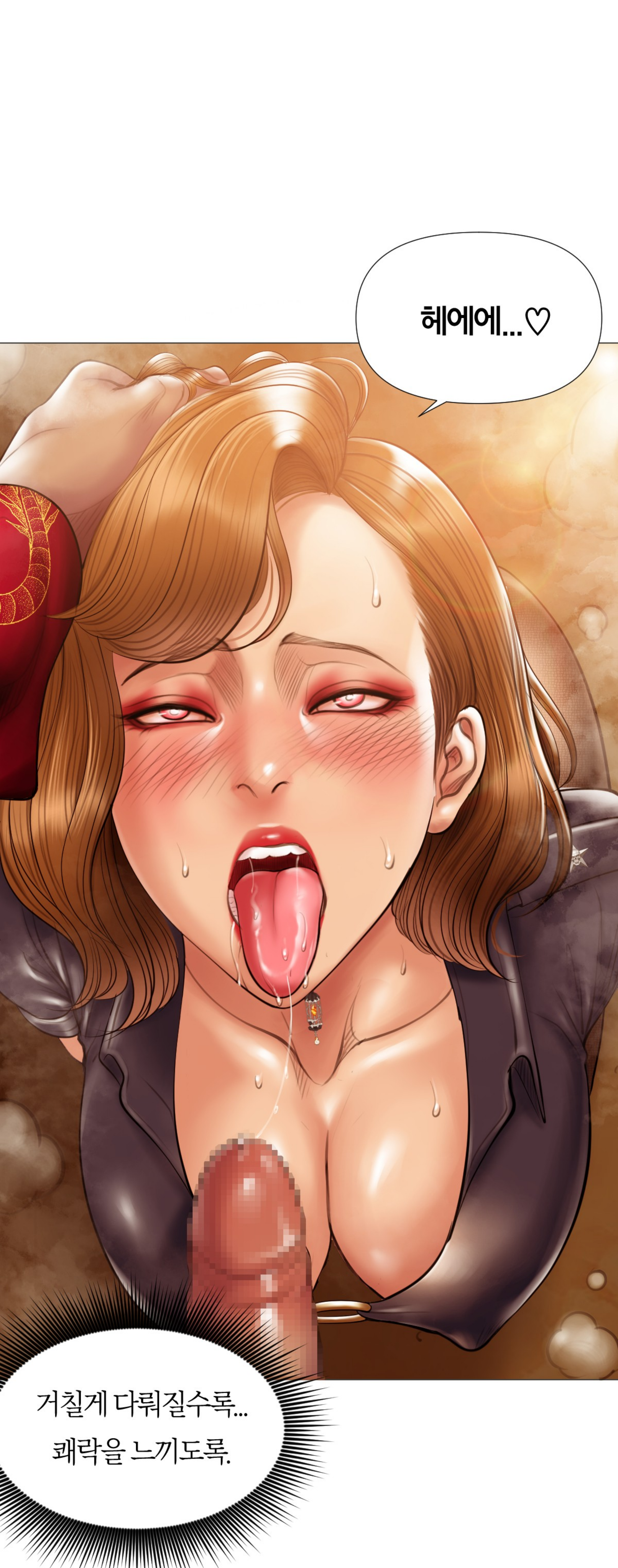


이럴 줄 알고 이미림에게 미리 지시해놨지.



나를 거역하거나 해치려 들면

패륜을 저질렀을 때와 비슷한 죄책감이 몰려오도록 만들라고. 그리고...



거칠게 다뤄질수록... 쾌락을 느끼도록.